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1.11.26



제 1 회 한국학 발전 세미나

2021년 4월 30일(금) 비슈케크 소재 유로파호텔 대회의실(2층)에서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발전 세미나 (이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가 주최를 하고,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을 하였다. (관련 기사 p.2)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p.2-4)	타슈켄트 동방대 (관련기사 p.5)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6)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7)	카자흐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8)
제 1 회 한국학 발전 세미나, 제 3 회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2 회 대학생 한국학 워크숍	2021 대한민국 주간	2021 한국학올림피아드, 한국 문학의 밤	NU 한국학학술회의,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젠더정치학: 남성지배에 도전하는 여성들"	2021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지원사업 (중앙아시아 지역) 온라인한국어교실 개강식

* 이 뉴스레터는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Muratbayev 200,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1 회 한국학 발전 세미나

2021년 4월 30일(금) 비슈케크 소재 유로파호텔 대회의실에서 제 1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발전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가 주최하고,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의 주제는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발전 전략 모색”, 세부 주제는 “한국 ODA(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키르기스스탄 선정의 의미와 그 활용 방안”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이 제 3 기(2021-25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이 된 것에 발맞추어 기획된 본 세미나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백태현 소장(KF 과건교수)이 진행하였고, 주관대학인 중앙아시아 한국대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개회사,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하태역 대사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 베체슬라프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념공연으로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과 키르기스 한국대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팀의 공연이 있었다.

본 세미나의 참석자는 주제 발표자 2명, 패널발표자 4명 외에 수도인 비슈케크와 인근 추이 주의 초중고 교장 및 교감, 그리고 비슈케크 및 추이 주의 교육행정 담당자 20명이 참석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주제 발표는 (사)한-키르기스 친선교류협회 김철용 회장이 “중점협력국 지정의 의미와 활용”, 중앙아시아 한국대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이 “키르기스스탄 한국학교육 ODA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오후에 진행된 패널발표는 백태현 교수가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과 ICT 분야 융합 방안”, 중앙아시아 한국대 텐 이리나 교수가 “키르기스 한국대의 한국어 온라인강의 및 원격교육 현황”, 비슈케크 41번 슈콜라 크라브초바 빅토리아 교장이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비슈케크 62번 슈콜라 쿠투예바 아나라 교감이 “한국어: 교류와 소통의 토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특히 패널발표에 참여한 두 명의 슈콜라 교육담당자의 발표를 통해 현재 초중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본 세미나를 기획한 백태현 교수는 “키르기스스탄의 ODA 중점협력국 선정의 의미는 매우 크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한국학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학의 정체성 확립은 곧 한국형 발전모델 전수 및 키르기스스탄 내 한국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ODA의 기본 목표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일선 교육담당자와의 상호 협력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과제이다.”라고 본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3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2021년 4월 24일(토) 비슈케크 소재 유로파호텔 대회의실(2층)에서 ‘제 3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이하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올림피아드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한국학센터가 주최를 하고,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와 한국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을 하였다.

2019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본 올림피아드는 올해로 3 회를 맞이 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대상의 중요한 학술행사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되었다. 다만 본 올림피아드는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고, 행사장은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채 진행이 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백태현 교수(KF 과견교수)가 총괄 진행을 하고, 주관대학인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셰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개회사와 이어 주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한 교수협의회 김창석 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올해 진행된 올림피아드에는 키르기스스탄의 여러 대학에서 선발된 17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그 참가 규모를 축소하였다.

김창석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학생들을 치하하며,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듯이 지속적으로 한국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향후 키르기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최고의 한국학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당일 오전에는 한국학 분야를 주제로 한 작문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역시 한국학 분야의 주제를 순서대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심사는 두 영역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림피아드의 결과는 키르기스 한국대학의 울란베코바 카르리가치 학생이 대상, 잠그르카노바 알리야 학생이 최우수상,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이심쿨로바 베르메티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대학의 이스마일로프 아딜렛, 쿠르만백 그즈 투마르잔,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의 압들다예바 사우다, 키르기스 한국대학의 누르란 울루 엘다르, 테미르베코바 자리나, 오르몬베코바 세짐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본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주관한 백태현 교수는 “코로나 이후 한국학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더욱 중요한 현실적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키르기스스탄은 한국 ODA 중점협력국에 선정이 되어 양국은 상호 발전적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제 대학 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한국학 교과과목이 개설되기를 기대하며,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키르기스스탄과 한국을 잇는 유능한 차세대 연구자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라고 본 올림피아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2 회 대학생 한국학 워크숍

2021년 10월 11일(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다마스 호텔 대회의실에서 ‘제 2 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 워크숍(이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워크숍의 취지는 한국어와 한국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국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안목에서 한국학이 현 키르기스스탄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나름대로 재발견해 가는 성찰의 시간도 갖는 데에 있다.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관광산업의 미래는 밝다. 코로나 이후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겨냥한 본 워크숍 주제는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학의 역할”이었다. 본 워크숍은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한국학센터가 주최를 하고,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그리고 사단법인 K-의료관광협회가 후원을 하였다. 워크숍에 참가 대상은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재학생 70여 명으로 한정을 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한국학센터 소장 백태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 행사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환영사, 이원재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의 축사, 키르기스스탄 여행사협회 사파로프 누르백 회장의 축사, 키르기스스탄 헬베타스(HELVETAS, 스위스 개발협력단체) 쿠다이베르디예바 나르기스 그린 투어 프로젝트 매니저의 축사, 사단법인 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의 온라인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과 키르기즈 한국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팀과 한국 부채춤 팀의 기념공연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의 취지와 그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히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이원재 대사의 한국학 특강이 기획되었다. 이 대사는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관광산업의 발전과 양국 문화 교류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어의 현실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후 한국학센터 백태현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생태관광 및 자연치유관광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였고, 한편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나날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한류에 그 기저를 둔 다양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한국학의 역할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K-의료관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한국학 전문가 또한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과제로 인식이 되었다. 워크숍 진행은 맡은 백 교수는 “향후 보다 진일보된 한국학 교육과 연구도 중요하지만 키르기스스탄의 다양한 사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한국학의 실질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타슈켄트 동방대

2021 대한민국 주간

타슈켄트 국립 동양학대학(이하 동방대) 한국학 단과대학은 2021년 3월 30일(화)부터 4월 7일(수)까지 <대한민국 주간>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주간>은 한국학을 전공하는 전문가와 신진연구자, 그리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행사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3월 30일 동방대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학 단과대학의 소개와 더불어 한국학 단과대학 재학생들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다. 개회식에는 내외 귀빈과 동방대 교수 및 재학생 5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4월 1일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컨퍼런스의 축사는 리호시에바 굴체흐라 동방대 총장, 베김쿨로브 우족보이 고등 및 중등 특수교육부 차관,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가 하였으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한국학 학자 34명이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였다.

4월 2일에는 “신진 한국학자들: 2021년 학문과 창의성의 문턱에서”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리호시에바 굴체흐라 동방대 총장과 우스마노바 쇼이라 한국학 단과대학장의 축사로 시작된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대학원에 재학중인 31명의 신진 한국학 연구자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4월 3일에는 동방대 부속 고등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퀴즈대회가 개최되었고, 4월 5일에는 제 59번 고등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동방대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한국을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퀴즈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주간>의 마무리는 한국 문학이 담당하였다. 4월 7일 38명의 한국어문학과 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시조를 우즈베크어로 번역하여 각각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낭송하였다. 시조 낭송회에는 한국학 전공이 아닌 동방대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하여서 한국 시조의 정취에 빠져들었다.

2021년 개최된 <대한민국 주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학자들이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를 전공하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도 직접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한국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카자흐 국립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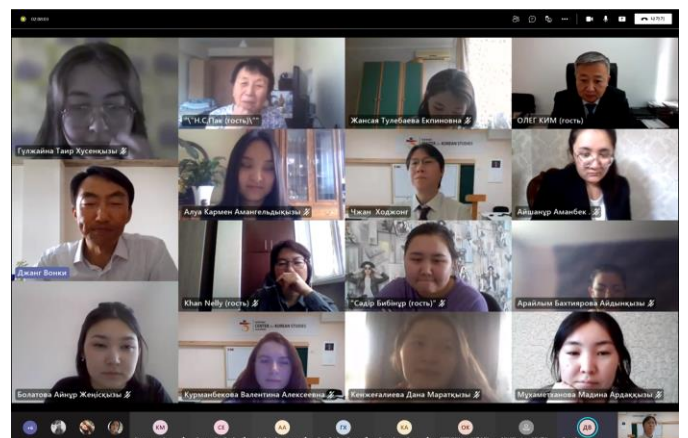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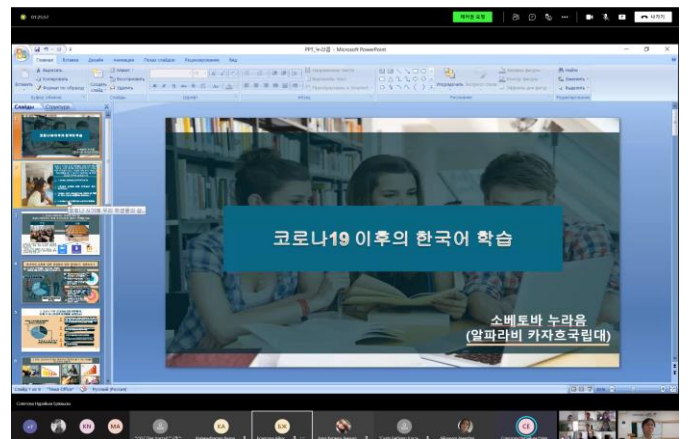
2021 한국학올림피아드

금년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한국학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2021년 4월 29일 카자흐 국립대에서는 동양학(한국역사, 문화) 분야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오랫동안 같고 닦아 온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경연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다. 행사에는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를 비롯하여,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유라시아 국립대 등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다. 한국학주간 첫날 행사로서 진행된 한국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학과 3학년 칼리예바 굴덴이 1위를 수상하였고, 4학년 오테젠 가우하르, 바쿰바이크즈 아루잔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올림피아드를 통해 각자의 한국어 능력을 겨루고 그 동안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점검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4월 26일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한국어, 통번역)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한국어 학습”을 주제로 하였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올해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체험한 원격수업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흐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온라인수업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비일상적인 상황이 빨리 끝나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참가한 학생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본교 2학년 소베토바 누라임이 2등상을 수상하였으며,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후원하여 2등에게 주어지는 50,000 텡게의 상금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수상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발표 내용을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교재를 벗어나 한국어 발표에 필요한 말하기와 발표 관련 프리젠테이션 활용 방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문학의 밤

2021년 11월 3일 가을 밤에 알마티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국립도서관에서 아주 이색적이고 보기드문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 문학의 밤”을 주제로 국립도서관과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관이 공동으로 한국시 낭송의 밤을 개최하였다. 본교 한국학과에서 4명의 학생들이 시낭송으로, 4명이 한복도우미 등으로 참가했다. 특히 고운 한복을 차려 입은 4명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4개 국어(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낭독했는데, 1920년대 나라 잃은 슬픔과 아픔이 담겨있는 만해 한용운의 시는 4개 언어로 젊은 한국학도들의 입을 통해 강렬하게 전달되었고, 청중들의 가장 큰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 내었다. 이외에도 4명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행사진행 동안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동행하는 일을 도왔고, 10여명의 학생들도 청중으로 행사에 참가하여 의미있는 행사의 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나자르바예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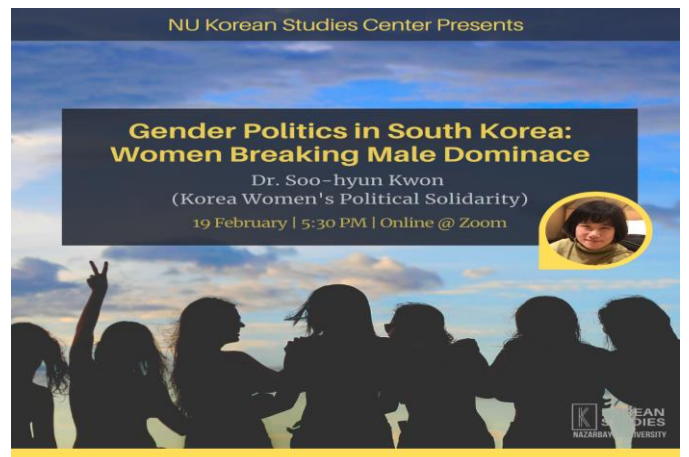
NU 한국학 학술회의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는 지난 5월 20일 온라인 한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정치, 경제, 외교, 언어/문화 등 네 개 분야에서 각 하나의 분과를 구성하여 총 4개 분과로 진행되었다. 제 1분과는 “한국어,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양순임 교수(한국어문화학부), 조위수 교수(국제학부), 권오경 교수(한국어문화학부)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제 2분과는 외교분야로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립제주대학교 공민석 교수(정치외교학과), 국립인천대 조형진 교수(중국학술원), 그리고 국립창원대 서지원 교수(국제관계학과)가 각각 한미관계, 한중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의 한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 3분과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숭실대 백경민 교수(정보사회학과),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박사(규제혁신연구실), 국민대 장한일 교수(정치외교학과)가 발표를 맡아서 육아휴직정책, 기후변화대응, 당파적 양극화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제 4분과는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인하대 서현덕 교수(경제학과), 영남대 임혜준 교수(경제학과), 그리고 본교의 김인경 교수(경제학과)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경제에의 영향, 국제무역, 코로나 상황에서의 소비행태에 대한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영상을 본교 한국학센터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한국학센터의 한국학 세미나 시리즈 “젠더정치학: 남성 지배에 도전하는 여성들”이 지난 2월 19일(금)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권수현 박사(여세연 대표)를 초청하여 한국의 젠더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권수현 박사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젠더문제들 중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폭력에 대해 소개한 후 최근의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들을 통해 드러난 여성차별과 혐오가 단순한 범죄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가 개선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최근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로 여성혐오가 20, 30대 남성층에서 강해지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오랫동안 노력해온 여성운동의 성과와 동력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는 말은 전하기도 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본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가하여 한국사회와 정치가 마주하고 있는 여성문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다루었다. 많은 관심과 질문이 오고 갔던 이번 세미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성공스토리에 가려진 한국의 여성문제를 알려주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녹화 영상은 본교 한국학센터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온라인 한국어교실 개강식

2021년 10월 4일(월)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에서 “2021 한국어예비교원 국외실습지원사업(중앙아시아 지역) 온라인한국어교실” 개강식이 개최되었다.

온라인 개강식에는 이번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동은 단장(국민대)을 비롯하여 김진엽 한국어진흥과 과장, 홍고은 연구사, 조은 연구사(이상 국립국어원), 윤희선 교수, 이수연 교수, 이화진 교수(이상 국민대), 조남호 교수(명지대), 김정훈 교수(한양대), 장호중 교수(카자흐 세계언어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강식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온라인한국어교실 담당 경력교원 4명, 예비교원 15명이 온라인으로 인사를 나누었고, 아망겔디 아사드베크, 아만베크 아이샤누르가 75명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을 대표하여 온라인한국어교실을 준비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실습 현장 다양화를 위한 국외실습 기회를 마련하고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은 2017년부터 지난 해까지 100여 명의 교원을 중앙아시아 지역에 파견하였고, 총 1,500명 이상의 현지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현지 한국어교육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작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현장과 연결하여 한국어교실을 진행하는 한편,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였다.

올해는 지역과 대학을 확대하여 러시아의 사할린 국립대(현지 학생 80명, 예비교원 12명), 카잔연방대(현지 학생 42명, 예비교원 12명), 이르쿠츠크 국립대(현지 학생 21명, 예비교원 7명),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동방대(현지 학생 35명, 예비교원 7명),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세종학당(현지 학생 18명, 예비교원 4명),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세계언어대(현지 학생 40명, 예비교원 8명) 등 4개국 6개 도시에서 참여하였다.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대, 대전대, 부산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국교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국내 33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50명의 예비교원들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의 6개 대학 학생 236명에게, 국민대 자체적으로 선발한 예비교원 7명이 카자흐 세계언어대 35명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